

# 의식의 적폐를 청산해야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에 나섰다. 그 동안 쌓인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임무다.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할 수 없는 것처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 부패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도 주로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일어난다.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물론 사회 일각에서는 적폐청산은 핑계일 뿐 실제로는 정치보복이라는 냉소적 비판이 없지 않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는 가증스러운 불의다. 그런데

이번 작업이 순수한 적폐청산인지 정치보복인지는 이념에 따라 다르게 판정되고 있어 법률 지식과 수사권이 없는 보통 시민에게는 어느 것이 옳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적폐청산이던 정치보복이던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지고 모든 잘못이 처벌되는 것은 국민에게는 무조건 이익이다. 정치보복도 그 자체로는 옳지 않지만 보복하는 쪽도 후에 보복 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조심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순수하든 불순하든 적폐청산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일반 시민이다. 그리고 지금 수준의 시민의식과 언론의 비판 능력으로도 후진국에 나타나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막을 수 있다.

어쨌든 “공적 임무를 맡은 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내부자들이 외부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는 어느 사회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패가 너무 오래 계속되어 왔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6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혹은 투명성지수)가 세계 52위라고 했다. 일본 20위, 대만 31위, 아프리카의 빈국 보츠와나 35위 등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탈세율은 26.8%로 그리스 수준이고 보험사기는 일본의 14배나 된다. 최근 적폐청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들만 보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가 객관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민주화, 경제, 교육, 과학기술, 스포츠 등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윤리에는 매우 부끄러운 후진국이다.

부패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하버드 경제학자 카우프만 (D. Kaufman)은 “부패가 경제발전의 가장 심각한 방해꺼리” (the single greatest impediment)라 했다. 만약 우리가 일본수준으로만 투명하면 경제가 매년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패가 정의를 파괴하고 갈등을 키워 국민을 심히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부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부패는 “가난한 자의 입에서 빵을 빼앗는 행위” (세계은행)고 뇌물은 “가난한 자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 (H. Bury)이란 주장도 있다. OECD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갈등비용은 GDP의 27%나 된

다 한다.

물론 그 동안 부패가 조금씩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 언론자유, 시민사회의 성장 등이 이에 공헌했다. 최근에 실시된 김영란 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언론자유가 확고하더라도 시민의식의 적폐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패문화는 사라질 수 없다. 그 동안 부패가 관행이 되어 암이 걸려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부패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각이 둔해졌다. “적폐청산”을 받기보다 “정치보복”을 비판하는 의식에도 부패에 대한 불감증이 숨어 있다. 이런 “도덕 불감증”이 고쳐지지 않으면 적폐청산은 일시적인 진통제로 끝나고 말 것이다.

한 사회의 윤리문화는 그 사회의 지배적 종교가 책임져야 한다. 세계문화가 세속화되어 종교의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깨어 있는 고등종교는 도덕성 제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지배종교와 청렴도 간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통일이 된지 근 30년이 되었는데도 동독 출신 독일인은 서독출신 독일인만큼 정직하지 않다 한다. 무신론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결코 윤리수준이 높을 수 없다.

한국에서 교인의 숫자나 사회적 영향력에서 가장 큰 종교는 개신교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개신교가 지금보다 훨씬 약했을 때에는 오히려 사회 각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고 정직과 공정성에도 앞장섰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 힘이 커진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커녕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목사들이

---

적폐청산이던  
정치보복이던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지고  
모든 잘못이 처벌되는 것은  
국민에게는 무조건 이익이다.

---

되어 그런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생존하고 제대로 성장하여 세상을 바로 이끌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기독교계의 적폐청산이 벌어져야 한다.

논문과 설교를 표절하고 단체의 장이 되기 위하여 뇌물을 뿌리며 심지어 대형교회 세습까지 감행한다. 이번 적폐청산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도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기는커녕 세상의 구정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적폐청산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곳이 바로 한국 기독교계가 아닌가 한다. 지난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당시 기독교의 적폐청산이었다. 만약 그런 개혁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고 인류사회에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당시의 천주교처럼 비윤리적이고 비신사적인 행위들이 관례로 정착